



스포츠 포커스

조선대 육상부
높이뛰기 이성
해머던지기 박영식

“
한국육상의 미래
우리가 책임진다
”



박영식(왼쪽)선수, 안재오(가운데) 감독, 이성 선수가 조선대학교 교정을 거닐며 12월부터 시작되는 동계훈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성

더 높이... 더 멀리...
이젠 세계로 향한다

이성 전국체전 4연패 국내 '높이뛰기 지존'

박영식 꾸준한 기록 향상... 올 국가대표 뽑혀

‘한국육상의 미래를 책임진다’

조선대학교 1년 선·후배사이인 높이뛰기의 이성(2년)과 해머던지기 박영식(1년)의 다부진 꿈과 포부다.

각종 전국대회와 전국체전 입상을 통해 이미 실력을 입증받는데다 대회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는 등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호언장담을 흘려들을 이들이 없다.

이성은 봉산초-광주체중-광주체고 출신이고, 박영식은 동운초와 광주체중-광주체고를 거쳤다.

1년 선·후배인 이들은 종목은 다르지만 항상 붙어다니며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어 조선대학교 육상부 2총사로 통한다.

이성은 초등학교 4학년때 높이뛰기에 입문, 6학년때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일찌감치 기대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중학교에 진학, 2학년때까지 이렇다 할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슬럼프를 겪기도 했으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서히 페이스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고2 때 세계청소년대회 출전은 이성의 육상 인생을 바꿨다. 이성은 이대회에 출전한 뒤 육상선수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높이뛰기에 눈을 뜨게 된다.

이성은 “아마 세계청소년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항상 그때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채찍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루며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한 이성은 집중과 훈련을 통해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높이뛰기 최강자로 떠오르게 됐다.

이후 이성은 올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까지 대회 4연패의 위업을 이루며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적수를 찾아볼 수 없는 지존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가대표에 발탁됐으나 11월 건강검진서 간에 이상이 발생, 현재는 국가대표에서 빠진 상태지만 조만간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

1년 후배인 박영식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운동선수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체격조건이 좋은 박영식은 경신중 2학년 때 교사의 권유로 광주체육중으로 전학해 원반던지기 선수로 데뷔하게 된다.

하지만 늦깎이 데뷔 탓인지 성적이 신통치 않자 박영식은 고1 때 원반던지기에서 해머던지기 종목 전환을 하고 이때부터 고기가 물을 만난 듯 꾸준한 기록향상을 통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기쁨을 도왔다.

이제는 대회 때마다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성장속도가 빠르다.

올해 초에는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박영식은 “비록 비인기 종목이지만 제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운동을 하고 있다”며 “아직 한국신기록에 많이 못미치지만 2011년 4학년때까지는 반드시 한국신기록을 경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두선수의 뒤에는 안재오(41) 조선대학교 육상감독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다. 육상계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안 감독이지만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훈련할 때는 ‘호랑이 조련사’다. 항상 선수들과 대화를 통해 조율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감독이기에 형님같은 존재다.

이들은 안 감독의 뒷바라지가 없었으면 최근의 기량향상도 없다고 단언한다.

지난 1998년 조선대학교 코치로 부임해 김혁(멀리뛰기), 김재대(중·장거리), 김덕현(세단뛰기)등 다수의 선수들을 키워내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육상경기연맹 우수 지도자상, 공로상,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선수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력은 ‘국가대표급’이다.

안 감독은 “영식이나 성이는 대학 3~4학년이 되면 기량이 절정에 올라 본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록경신은 물론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월까지 휴식을 갖고 12월부터 본격적인 동계훈련에 돌입한다. 특히 동계훈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안 감독을 비롯한 이들 2총사는 올 동계훈련에 올인한다는 각오다. 오전10시~12시 30분까지 체력훈련과 자신의 부족한 파워 보강 등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정밀한 기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성은 중1 때~현재까지 자신을 지도해주고 있는 김혁(현 국가대표 감독·세단뛰기 감독)으로부터 올 동계훈련 동안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계획이다.

안 감독은 “성이는 최근 몇년간 라이벌이 없어 정체가기에 빠져 있다”며 “스스로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 기록향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식은 12월 26일까지 대표팀 중국 현지 훈련을 다녀온 뒤 학교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더 높이, 더 멀리’를 외치며 자신과의 끝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박영식과 이성의 한국신기록 경신의 꿈이 금방이라도 잡힐 듯 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박영식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 서비스국(062)220-0551

새마을회마차 담양군 객사리 새마을금고와 동진병원사이 포장배달전문 연회식원비(80석) 대표 채종삼 ☎(061)382-1624	만복대체육법원 부군문흥동우신북기도광주문흥동골목골목회계정문안 건강상담 악순수기요법 통증치유 오십견 전위치유 전비통 보양복 등 영기치유 주혈치유 병침치유 부항치유 ☎(062)266-5202	일가공인증개사 동구충정로1가광주우체국앞 2층 충정로상가, 지하상가, 아파트, 전원주택 경매 및 임대 매매 ☎(062)234-8216	따라치킨호프 동구 계림동 E마트1층 후라이드 양념치킨, 양념만, 후라이드만, 생맥주 전회주문, 신축배달, 남여 이벤트, 이트수시모집 ☎(062)529-7275	전라도맛집 동구 학동 그랑프리호텔 옆 병어조림, 갈치조림,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오혜숙 ☎(062)236-0155	간장게장꽃게장전문점 서구 구상동시장과 KT사이 백반, 수제비, 갈국수, 포장미차(아간) 대표 원미희 ☎(062)372-2911	전복사랑 동구 학동 목회예식장 앞 전복요리 전문점 대표 박희수 ☎(062)232-3339
효성다방 정성군 영천리 터미널 종로약국 앞 2층 친절함, 핫집 대표 고정순 ☎(061)393-8090	장수추어탕 북구 두암동 주공@ 2단지 상가 2층 추어탕+반찬+공기밥 시무실병원 학교 16년전통 추어탕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062)264-8540	잡자리노래출 동구 금남로 3가 동구정원(교과)재개발 옆 지하 성실서비스 대표 김애자 ☎(062)227-0537	가향일식 남구 봉선동 동아고4거리 유정빌딩 2층 참치 및 자연산 전선 단제에약산남형영 대표 박송희 ☎(062)653-6800	무다리양림점 수구 양림동 휴먼시아@정문 맞은편 꼬치류, 닭신적, 날개, 모래집, 매운닭살, 때문날개 골뱅이무침, 모듬소시지, 복지복음 각종탕류 ☎(062)672-9989	남원추어탕 광산구 쌍암동 쌍암공원 정문 앞 추어탕(5,000원) 매생이탕, 해물모듬탕 대표 김백협 ☎(062)972-3824	진성데코빌 서구 쌍촌동 백일주유소 옆 대문, 대문, 대문, 대문, 대문, 대문, 대문, 대문 대표 이성우 ☎(062)373-4780
장인프로광택 서구매월동 풍암지동차매 2단지 앞 특수광택, 특수유리막, 실버, 보링, 제안염 및 기술 연수생강 ☎(010)7175-0865	손객 동구 금남로 2가 구 동구청 뒤편 보리밥, 삼겹살 전문 ☎(062)228-4959	참외 동구 동동 구 동구청 뒤편 유기농채소 직접재배 생산한 아채시용 대표 조정순 ☎(062)222-1215	무한검감자탕 동구 학동 구 남광주시청 학강다리 옆 100%무조미료 국내산통배사우 무현리필 대표 김진혁 ☎(062)653-5565	삼오필름 동구 금남로 3가 카톨릭센터 뒷골목 새제도의 모든 것, 필름, 사진, 개문, 개문, 개문, 개문 대표 최영태 ☎(062)224-3575	시그너스커피숍 동구 충정로 3가 레스모아빌딩 4거리 에스프레소, 파르페 전문점 ☎(062)222-4633	Reebok(염주점) 서구 화정동 염주4거리 광주은행 옆 축구 단체복 전문 대표 손석호 ☎(062)376-4519